

## 태음인 소화를 도와주는 식품에 대한 연구

- 연, 울무, 은행, 밤을 중심으로 -

김 종 덕\*

### Abstract

## A study on food to help digestion for Taeumin ; lotus, adlay, ginko nut, chest nut

Kim Jong Du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hich argues that physiology, pathology, diagnosis, medical cure depend on individual's constitution, is different from a previous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Recently the idea of fitted medicine, made by concepts based on genome project, is similar to constitu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at both of them take the individual difference into considerati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s able to contribute to explanation of function of genes, because the same food acts differently on individual's constitution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Dongmu Yugo Yaksungga(동무유고 약성가)' it is said that A lotus, adlay, ginko nut, chest nut open stomach-Qi of Taeumin, help to digest, and give a better appetite. But this is different from the explanations of a previous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All of them help to digest of Taeumin, but a adlay, ginko nut, chest nut distinguishing clearness-unclearness(清濁) and spouting unclearness(濁)-Qi, has commonness of promoting digestion.

But in the early days, a ginko nut is thought to be helpful to digest, the latter days, it is used for Mahwangjungchuntang which cures breast-stomachache(胸腹痛)and asthma(喘氣, 哮喘病); It shows the change of recognition.

## I. 서론

사상체질에 따라 생리 병리 및 진단 치료가 각각 다르다고 보고 있는 사상의학은 기존의 학과의 차별성이 있다. 최근 인간의 유전자지

도를 규명하는 게놈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맞춤형약품도 개인의 특징적인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상의학에서 분류하는 체질과 서로 맥이 닿는다. 사상의학에서는 동일한 식품이 체질에 따라 서로 다른 약리작

\* 사당한의원

교신자 : 김종덕 주 소)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44-7 사당한의원 우) 156-092 전화) 02-599-1772

E-mail : sa-dang@hanmail.net

용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전체의 기능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동무(東武) 이제마(李濟馬, 1837~1900)에 의해 사상체질별 식품이 분류되었고, 그 이후에 이를 계승 발전시켜왔으나 그 식품이 분류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미흡하였다. 하지만 최근 약물에 대한 문헌연구에 힘입어 기존의학의 관점이 아닌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초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sup>2)</sup>

「동무유고 약성가」에서 연, 울무, 은행, 밤이 태음인의 위기(胃氣)를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시키고 입맛을 나게 한다고<sup>1)</sup> 하였으나, 이는 기존의학에서 바라보는 식품의 효능설명과는 상이하다. 이에 본고는 태음인표증에 사용하는 울무 밤 은행과, 태음인리증에 사용하는 연을 상호비교하면서 왜 서로 다른 효능의 식품을 같은 부류로 분류하였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소양인의 위기(胃氣)를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시키는 약재로 분류한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와 태음인의 위기(胃氣)를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시키는 약재로 분류한 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와의 상호비교검토를 하여야하나<sup>2)</sup> 본고에서는 태음인 식품이자 약재인 연, 울무, 은행, 밤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사상약물의 근거로 동무의 저서인 『草本券』, 『東武遺稿』, 『동의수세보원 甲午本』, 『동의수세보원 初版本』 등을 참고하였고, 기존의학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

았다. 그리고 식물의 특성에 고려하여 그 공통점을 살펴보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 II. 본 론

### 1. 사상약물의 분류근거 방법

#### (1) 馨臭液味

체질별 약재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馨臭液味’의 방법이다. 『東武遺稿』에 의하면 형(馨)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니 마치 애성(哀性)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과 흡사하여 태음인약(肺藥)에 배속되고, 취(臭)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만 나는 것으로 마치 노성(怒性)이 널리 감싸 안는 것과 흡사하여 소음인약(脾藥)에 배속되고, 액(液)은 흘러서 퍼지되 2차원 공간에서만 가능하므로 마치 희성(喜性)이 넓게 퍼지는 것과 흡사하여 태양인약(肝藥)에 배속되고, 미(味)는 씹어야 맛을 아는 것과 같이 퍼지지 않고 뭉쳐지므로 마치 낙성(樂性)이 깊이 굳어지는 것과 흡사하여 소양인약(胃藥)에 속한다고 보았다.<sup>3)</sup> 한편 태양인약의 기준인 액(液)을 옥(沃)으로도 보았다.<sup>4)</sup>

형(馨)은 원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형향(馨香), 방형(芳馨)의 의미인데, 기존의 의서에서는 굴 곱향 촉초(蜀椒)같이 향이 나는 약재를 설명하는데 사용하였다.<sup>5)</sup> 하지만 형향(馨香)이 있다고 설명한 약재가 대부분 소음인약재이기 때문에 동무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의 차별

1) 송일병, 『사상의학의 약리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1967.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7(2), 1995.

이시우, 『東醫壽世保元 處方에 活用된 藥材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종열,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박상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3(2), 2001.

2) 『東武遺稿』,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

3) 『東武遺稿』,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

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 開脾之胃氣 而消食進食

4) 李濟馬, 『東武遺稿』, 「總論」, 四藥之於四臟也 馨歸於肺 臭歸於脾 液歸於肝 味歸於腎.

5) 李濟馬, 『東武遺稿』, 藥物之性 厚馨者 歸於肺 厚臭者 歸於脾 厚沃者 歸於肝 厚味者 歸於腎 是故 黃栢 木通 山茱萸 等屬 其味深吸 而入於腎 麥門冬 五味子 石菖蒲等屬 其馨輕清 而浮於肺 官桂 附子 白朮 當歸等屬 其臭猛烈 而壯於脾 蕎麥 葡萄 木瓜等屬 其液緣淫 而緩於肝 以此而推 則白草可當而知之也.

6) 賈思恩, 『齊民要術』, 「橘」, 異物志曰 橘樹白花而赤實皮馨香 又有善味 江南有之 不生他所

성을 기하기 위해 형향(馨香)이 아닌 형(馨)만을 사용한 듯하나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2) 呼吸出納

肺는 氣液을 내뿜고[呼], 肝은 氣液을 빨아들이고(吸), 脾는 水穀을 받아들이고(納), 腎은 水穀을 내보내(出) 역할을 한다.6)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胃로 水穀이 들어오는데 脾가 호위하고, 대장으로 水穀이 나가는데 腎이 호위하니, 脾와 腎은 水穀이 번갈아 補瀉하게 된다. 胃脘에서 氣液을 내뿜는데 肺가 호위하고, 小腸에서 빨아들이는데 肝이 호위하니 肺와 肝은 氣液이 서로 번갈아 進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7) 따라서 태양인의 경우 기액(氣液)의 대사가 내뿜고 흡어주는 기운이 강하고 빨아들여 모으는 기운이 약하면 열격반위같은 태양인 리증이 생기고,8) 태음인의 경우에는 태양인과 반대로 빨아들여 모으는 기운이 강하고 내뿜고 흡어주는 기운이 약하면 병에 걸리게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무의 초기생각을 적은 『草本卷』에서는 肺는 기를 흡어주고(散) 肝은 기를 채워주는(充) 관계로 이해하였고,9) 『東武遺稿』에서는 肺는 기운이 열리고(開), 肝은 기운이 닫히는(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고,10) 脾는 올라가고(升) 腎은 내려가는(降) 기운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의 변화는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나가는 고민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3) 升降開闔

태양인과 태음인을 내외(內外)의 관점으로 보면, 태양인은 겉으로 발산하기 쉽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쉽고 태음인은 안으로 쌓이기 쉽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 쉽다. 소양인과 소음인은 상하(上下)의 관점으로 보면, 소양인은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많아 열이 생기고 소음인은 내려가는 기운이 많아 냉하기 쉽다. 따라서 『東武遺稿』에서 ‘태음인병은 닫히는 기운(闔氣)이 많고 열리는 기운(開氣)이 적기 때문에, 태양인병은 열리는 기운이 많고 닫히는 기운이 적기 때문에, 소음인병은 내려가는 기운(降氣)이 많고 올라가는 기운(升氣)이 적기 때문에, 소양인병은 올라가는 기운이 많고 내려가는 기운이 적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태음인은 뚫고 나가는 힘[通力]이 좋은 약, 태양인은 막는 힘[塞力]이 좋은 약, 소음인은 올리는 힘[升力]이 좋은 약, 소양인은 내리는 힘[降力]이 좋은 약이 좋은 것이다.’11)라고 설명하고 있다.

『草本卷』에서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태음인은 밖으로 통하는 약[通外], 태양인은 중심을

張介賓, 『景岳全書』, 「集香散」, 洗癰疽潰爛 白芷 藿香 芽香 香附 防風 木香 甘草 右用水三碗煎數沸去粗 淋洗患處 立瘳 曰 此乃馨香之劑也 血氣開香則行 得臭則逆也

王好古, 『湯液本草』, 「藿香」, 心云 芳馨之氣 助脾開胃止嘔

李時珍, 『本草綱目』, 「蜀椒」, 訣云 椒稟五行之氣而生 葉青皮紅花黃膜白子黑 其氣馨香 其性下行 能使火熱下達不致 上薰 芳草之中功 皆不及

- 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
- 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水穀 納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 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 而迭爲進退者也
- 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意強而操弱 意強則胃脘之氣 上達而呼散者 太過而越也 操弱則小腸之氣 中執而吸聚者 不支而餒也 所以其病 爲噎膈反胃也.
- 9) 李濟馬, 『四象草本卷』,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水穀道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 散充氣道之門戶也.
- 10) 李濟馬, 『東武遺稿』, 肺以開 肝以闔 肺肝者 開闔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之府庫也.
- 11) 李濟馬, 『東武遺稿』, 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故其藥宜通 而不宜塞也 牛黃 熊膽 麝香 麻黃 杏仁 山藥 桔梗 黃芩 阜角之類 通力有餘 故肺病之吉藥也 蕎麥 葡萄 木瓜 黃芪 甘草之類 塞力有餘 故肺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 葡萄 黃芪 甘草 五加皮 獨活桃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吉藥也 牛黃 麝香之類 通力有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 附子 當歸 川芎 木香 陳皮 麥朮 鹿茸 紫河車之類 升力有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膏 黃連 澤瀉 山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 黃柏 山茱萸 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 附子 麥朮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藥也.

지키는 약[固中], 소양인은 장의 열을 내리는 약[清腸], 소음인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溫裏]이 좋다.’<sup>12)</sup>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소음인은 기운을 올려야하고[升], 소양인은 기운을 내려야하고[降], 태음인은 멎쳐진 기운을 느슨하게 하여야하고[緩], 태양인은 뻗치는 기운을 단속하여야[束] 한다는 승강완속(升降緩束)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sup>13)</sup>

#### (4) 平生所忌

『東醫壽世保元-甲午本(舊本)』(1894)이 나오고 그 개정판인 『東醫壽世保元-初版本』(1901)이 나오기 전인 광무 5년(1900)에 저술된 저자미상의 『普濟演說』은 사상의학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에서 ‘태양인은 助陽之藥 上焦之劑, 소양인은 補氣之藥 消導之劑, 태음인은 溫熱之劑 眞墮之味, 소음인은 補陰之藥 下焦之劑를 평생 금기해야한다.’<sup>14)</sup>고 정리하고 있다.

#### (5) 溫熱涼寒

수곡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氣液이 내뿜고 흡수함에 따라, 태양인은 陽溫之氣가 많아지고, 소양인은 陽熱之氣가 많아지게 되고, 태음인은 陰涼之氣가 많아지게 되고, 소음인은 陰寒之氣가 많아지게 된다.<sup>15)</sup> 소음인 소양인

의 경우에는 한열의 개념으로 보아도 좋지만 태양인 태음인의 경우에는 한열의 개념보다는 기운이 뻗치고 수렴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 (6) 保命之主

이상과 같은 개념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각 체질별 保命之主는 태양인 吸聚之氣, 소양인 陰清之氣, 태음인 呼散之氣, 소음인 陽煖之氣로 정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東醫壽世保元-甲午本』에는 나오지만 개정된 『東醫壽世保元-初版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sup>16)</sup> 왜 동무가 말년에 保命之主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할 분야이다.

## 2. 연

(1) 연은 향기가 멀리 퍼지는 脾의 과일이다.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국화 사랑이 자별(自別)했다는 것은 식자들이 대부분 아는 이야기인데, 연꽃에 대해서는 염계(濂溪) 주돈이(周惇頤, 1017~1073)의 애연설(愛蓮說)이라는 글에서 염계 자신이 연꽃을 아끼는 이유를 들어 말한 표현이 참으로 적절하다. 연은 진흙속에서 나면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으며, 속은 통하고 밖은 곧고, 덩굴을 뻗지도 않고 가지치기도 하지

12) 李濟馬, 『四象草本卷』, 太陰之藥 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之藥 宜清腸而不宜溫裏 太陽之藥 宜固中不宜通外 少陰之藥 宜溫裏不宜清腸.

1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蓋針穴 亦有太少陰陽四象人 應用之穴 而必有升降緩束之妙 繫是不可不察 敬俟後之謹厚而好活人者.

14) 『普濟演說』, 少陽人 怒心弘大 哀心促急 怒心弘大 則氣注脾而脾益盛 哀心促急 則氣注腎而腎益削 恒戒喜怒哀者 爲此也. 平生所忌者 補氣之藥 消導之劑也. 腹痛 泄瀉 下降之病也 病則病矣而有此 病愈之兆也 不須深慮 頭痛 咳嗽 吐血 虛汗 飲冷 上升之症也 病實重也 豫備藥治可也. 太陰人 喜心廣大 樂心促急 喜心廣大 則氣注肝而肝益盛 樂心促急 則氣挽肺而肺益削 恒戒喜樂者謂此也. 平生所忌 溫熱之劑 眞墮之味也. 頭痛 咳嗽 虛汗 吐血 上升之症也 病中有此 病愈之兆也 不須深慮 夢泄 痢疾 泄瀉 下降之症也 病實重也 豫備藥治可也. 少陰人 樂心深大 而喜心促急 樂心深大 則氣注腎而腎益盛 喜心促急 則氣消脾而脾益削 平生所忌者 補陰之藥 下焦之劑也 平生所戒者 喜心樂心也 東川之人乎. 太陽人 哀心弘大 怒心促急 哀心弘大 則氣注肺而肺益盛 怒心促急 則氣挽肝而肝益削 平生所戒者 哀心怒心也 平生所忌者 助陽之藥 上焦之劑也 冲齊之人乎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少陽人大腸出水穀 陰寒之氣 不足 則胃中納水穀 陽熱之氣必盛也 太陽人小腸吸氣液 陰涼之氣 不足 則胃脘呼氣液 陽溫之氣必盛也

1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舊本』, 少陰人 以陽煖之氣 爲保命之主 故脾胃爲本 而膀胱大腸爲標也 少陽人 以陰清之氣 爲保命之主 故膀胱大腸爲本 而脾胃爲標也 爲保命之主 故腦髓胃腎膀胱爲本 而腰脊小腸爲標 太陽人 以吸聚之氣 爲保命之主 故腰脊小腸爲本 而腦髓胃腎膀胱爲標.

않으며,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지며, 꽃꽂하고 깨끗이 서 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는 점을 사랑한다고 하였다.<sup>17)</sup>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연에 대하여 '연은 진흙에서 나왔지만 진흙이 묻지 않고,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빠지지 않는다. 보통 식물의 뿌리 줄기 꽃 열매 등의 품성이 모두 동일하기가 어려운데, 연은 모든 부위가 청청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연밥이 단단한 것은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으며, 열매에는 생명력이 감춰져 있으며, 연뿌리에서는 싹이 다시 나오니 생명이 윤회하는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불가에서 연을 인용하여 묘한 이치를 설명하고 의가에서 연을 복용하여 모든 병을 물리치는 것이다. 대개 연은 단맛이 있고 따뜻한 기운이 있으며 삼한 성질이 있는데, 맑은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곡식의 맛이 있으니 연밥은 脾의 과일이라 할 수 있다. 脾는 黃宮으로 水火木金을 다스리는 토에 속하여 원기(元氣)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脾가 잘 다스려지면 진액이 서로 생겨나 神이 스스로 생겨나고 오래 보아도 시력이 떨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권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예전사람들이 心腎이 서로 不交하거나 피로하여 백탁(白濁) 등을 치료할 때 清心蓮子飲을 사용하였고, 心腎을 보하고 精血을 도와줄 때에는 瑞蓮丸을 사용하니 다 이러한 이치에서이다.'<sup>18)</sup> 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상의 인용문은 연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사는 모습에서 淸濁을 구분하는 효력이 있음을 알고 생명력이 왕성한 연에서 기력을 돋구는 힘이 있음을 알았다. 또한 연의 맑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연이 『東武遺稿』에서 말하는 형(馨)의 기준에 해당됨을 알아 태음인약(肺藥)으로 인식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기존의학의 관점이지만 비장을 다스려 心腎이 서로 교통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바로 이 대목을 동무가 연이 태음인에게 胃氣를 열어주어 소화를 도와준다고 본 듯하다.

(2) 연근의 공기구멍은 氣液之氣가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식물의 뿌리와는 달리 연은 물 밑에 있는 뿌리와 물위의 잎자루를 잇는 굵은 공기구멍이 여러 개 뚫려있어 위아래로 호흡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本草問答』(1893)에서는 '연근의 마디는 서로 뚫려있기 때문에 行水시켜 血分의 濕熱을 없애고 어혈을 맑게 할 수 있다. 물속에 있는 연근의 결속은 매우 미세하여 그 가운데로 水氣가 통하게 되는 것이니 淋症에 사용하게 된다. 보통 淋症은 水竅가 통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물속에 자라는 연근은 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공기구멍이 있어 잘 통하는 특징이 있고, 紫色에서 紅色으로 변하니 연근은 血分으로 들어가 淋症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17) 周惇頤, 『古文真寶』, 「愛蓮說」, 水陸草木之花 可愛者甚蕃 晉陶淵明 獨愛菊 自李唐來 世人甚愛牡丹 予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予謂 菊花之隱逸者也 牡丹花之富貴者也 蓮花之君子者也 噫 菊之愛 陶後鮮有聞 蓮之愛 同予者 何人 牡丹之愛 宜乎衆矣.

18) 李時珍, 『本草綱目』, 「蓮藕」, 時珍曰 蓮產于淤泥而不爲泥染 居于水中 而不爲水沒 根莖花實 凡品難同 淸淨漣漪 草葉兼得 自弱密而節節生莖 生葉 生花 生藕 由莖首而生蕊 生蓮 生荷 生意 其蓮的則始而黃 黃而青 青而綠 綠而黑 中含白肉 內隱青心 石蓮堅剛 可歷永久 意藏生意 藕復萌芽 展轉生生 造化不息 故釋氏用爲引譬 妙理其存 醫家取爲服食 百病可却 蓋蓮之味甘氣溫而性膏 稟淸芳之氣 得稼穡之味 乃脾之果也 脾者黃宮 所以交媾水火 會合木金者也 土爲元氣之母 母氣既和 津液相成 神乃自生 久視耐老 此其權輿也 昔人治心腎不交 勞傷白濁 有淸心蓮子飲 補心腎 益精血 有瑞蓮丸 皆得此理

19) 唐宗海, 『本草問答』, 藕節中通 能行水 故用以行血分之濕熱 而能淸瘀血 藕在水中 節又結束極細 而其中仍能通水氣 用治淋症尤宜 淋是水竅通而不通 藕節在水中 不通而通 且包能回紫變紅 又入血分 以治淋症尤宜.

일반적으로 식물뿌리에까지 공기구멍이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연은 뿌리에서 줄기까지 막힘이 없이 구멍이 뚫려있다. 이는 기액(氣液)의 대사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공기구멍이 뿌리까지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된다. 뿌리의 생육상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생리대사가 활발할수록 공기의 공급과 순환이 증시되기 때문에 뿌리에까지 공기구멍이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呼吸出納의 관계로 보면 연은 氣液之氣의 내뿜는 기운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3) 연은 뭉친 것을 풀고 뚫고나가는 힘이 강하다.

연(蓮)은 연근의 마디마다 실뿌리를 내리고 진흙 속을 기면서 계속 이어지는(連) 특성이 있는 식물(艸)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오래된 씨앗에서도 연이 발아되니 연은 생명력을 이어주는데 강한 특성이 있다. 뭉친 것을 풀어주는 성질이 있는 연의 성질을 이용하여 연 끓인 물로 땀남의 때를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sup>20)</sup>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연을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東醫寶鑑』(1613)에 의하면 ‘연근은 토혈(吐血)을 그치게 하고 나쁜 피인 어혈(瘀血)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데, 날것으로 먹으면 괄란 후의 갈증을 없애주며 익혀서 먹으면 오장(五臟)과 하초(下焦)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sup>21)</sup>고 하여 뭉쳐진 어혈을 풀어주는 성질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연근을 의학에 사용하게 된 것은 송(宋)나라 때부터이며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송나라 때 어느 관리의 집에서 선짓국을 끓이는데 주방장이 연근의 껍질을 벗기다가 잘못 하여 연근을 선지에 떨어뜨렸다. 그런데 선지가 흩어지면서 엉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의사들이 이 사실을 안 후에 혈증(血症)환자들에게 뭉친 피를 풀어줄 목적으로 연근을 써서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sup>22)</sup>

이는 연근이 엉겨있는 선지피를 흩뜨려서 다시 엉기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뭉친 피를 풀어주는 목적으로 연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출산한 다음에 생긴 어혈을 풀기위해 연근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출산이후에 보통 날것(生物)이나 차가운 냉물(冷物)을 금해야하지만 연근은 이와 달리 뭉쳐진 나쁜 피를 풀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sup>23)</sup> 또한 말을 타다 떨어져서 생긴 어혈이 가슴과 배에 생기고 피를 여러 번 토했을 때 말린 연근을 분말로 만들어 술에 먹었는데 이도 충격에 의해 뭉쳐진 어혈을 연근으로 푼다는 개념이다.<sup>24)</sup> 그리고 벼루에 먹물을 담고 그 먹물에 연근즙을 떨어뜨려 보면 먹물이 갈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뭉치려는 먹물의 성질과 풀어서 흩어주려는 연근의 성질을 이해하면 해석이 쉽다.

이상과 같은 연의 성질을 升降開闔의 개념으로 본다면 연은 뚫고 나가는 힘[通力]이 좋은 약 또는 밖으로 통하는 약[通外]으로 보아 동무는 태음인약[肺藥]에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연은 開胃시키는 약

『본초강목』의 기록에 의하면 ‘연근은 이질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에 대한

20) 李時珍, 『本草綱目』, 「蓮藕」, 相感志云 荷梗塞穴鼠自去 煎湯洗鐵垢自新 物性然也

21) 許澹, 『東醫寶鑑』, 「藕汁」, 性溫味甘無毒 藕者蓮根也 止吐血 消瘀血 生食主霍亂後虛渴 蒸食甚補五藏實下焦 與蜜同食令人腹臃肥不生諸虫 ○除煩止泄 解酒毒 壓食及病後熱渴 ○節性冷 解熱毒消瘀血

22) 李時珍, 『本草綱目』, 「蓮藕」, 弘景曰 根入神仙家 宋時太宮作血鹹(香勤) 庖人削藕皮誤落血中 遂散渙不凝 故醫家用以破血多效也 齏者 血羹也

23) 李時珍, 『本草綱目』, 「蓮藕」, 說曰 產後忌生冷物 獨藕不同生冷者 爲能破血也

24) 李時珍, 『本草綱目』, 「蓮藕」, 墜馬血瘀 積在胸腹 唾血無數者 乾藕根爲末 酒服方寸匕 日二次 千金方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내려온다. 송(宋)나라 효종이 이질에 걸렸는데 모든 의사들이 치료를 하였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고종이 우연히 작은 의원을 보고 불러 왜 그런지 질문하였다. 병을 얻은 연유를 물어봐 민물게를 먹었다고 대답하였다. 의원이 진맥을 하고난 후 이것은 차가운 것을 먹어서 생긴 냉리(冷痢)라고 하였다. 새로 캔 연근을 짓찧어 뜨거운 술에 여러 번 먹었더니 즉시 병이 나았다. 이에 고종이 크게 기뻐하여 연근을 짓찧을 때 쓰는 금절구를 하사하게 되었으니 이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까닭은 연근이 능히 어혈을 없애고 해열시켜 막힌 위를 여는 작용[解熱開胃]을 하고 게독을 없애기 때문이다.<sup>25)</sup>라고 하였다.

이시진은 효종의 임상례를 정리하면서 연을開胃시키는 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동무유고』에서 언급한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과 흡사하다. 즉 속이 냉한 것을 먹어 생긴 설사는 위가 멎어서 생긴 것이니 胃氣를 열어 풀어주어야 한다는 시각과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은 평소에 표기가 약한 태음인이 리병(裏病)이 되어 血分이 손상될 때 비장을 도와 위 아래로 기혈을 순환시켜 活血하여 消食進食하는 것이다.

### 3. 울무

(1) 울무는 C<sub>4</sub>식물이다.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C<sub>3</sub>형에 비해 C<sub>4</sub>형은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

는데, 기장,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등이 대부분 태음인식품에 속한다.<sup>26)</sup> 광합성 능력이 탁월한 울무는 C<sub>4</sub>형으로 光呼吸이 없어 低濃度의 이산화탄소에서도 광합성이 잘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C<sub>4</sub>형과 같이 울무는 높은 광합성 능력을 영위하기 위해 많은 수분량, 낮의 고온, 긴 日照時間, 밤의 저온, 많은 시비량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의 태음인 식품들이 많이 흡수하고 많이 발산하여 태음인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듯이<sup>27)</sup> 왕성한 吸肥力과 강한 發散능력을 가진 울무도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달치는 기운[閏氣]이 많아서 생긴 질환에 사용

울무는 근육이 긴장하여 쥐가 날 때뿐만 아니라 나른할 때에도 사용한다. 『證類本草』(1108)에 ‘신농본초경’에서 약간 차가운 성질의 울무는 근육의 긴장하여 쥐가 나는 급성경련을 치료한다고 한다. 급성경련에는 2가지가 있다. 근육이 열을 받아 쪼그라들고 짧아져 단축되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고 펼 수가 없게 되는데 이는 열에 의한 경련으로서 울무를 쓰면 좋다. 그러나 한(寒)으로 인한 경련에는 울무를 써서는 안 된다. 울무는 효력이 완만하기 때문에 다른 약보다 배로 써야 효과를 보게 된다. 대개 한(寒)을 받으면 근육이 긴장되고 이어 열(熱)을 받으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만약 근육이 열만 받고 한(寒)을 받지 않으면 근육이 이완되는데 습(濕)이 겹치면 근육이 나른해지면서 무력하게 된다.<sup>28)</sup>고 하여

25) 李時珍, 『本草綱目』, 「蓮藕」, 按趙涪養癸譜筆云 宋孝宗患痢 衆醫不効 高宗偶見 小藥肆 召而問之 其人問得病之由 乃食湖蟹所致 遂診脈 曰此冷痢也 乃用新采藕節搗爛 熱酒調下 數服即愈 高宗大喜 就以搗藥金杵白賜之 人遂稱爲金杵臼 嚴防禦家 可謂不世之遇也 大抵藕能消瘀血 解熱開胃 而又解蟹毒故也

26) 拙著, 「옥수수(玉蜀黍)의 도입과정과 기장(黍), 수수(蜀黍)와의 상관관계」, 『사상의학회지』, 10(2), 1998.

27) 拙著, 「麥類의 春化處理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 農家月令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0(1), 1998.

28) 唐慎微, 『證類本草』, 「薏苡仁」, 本經云微寒 主筋急拘攣 拘攣有兩等 素問注中 大筋受熱 則縮而短 縮短故攣急不伸 此是因熱而拘攣也 故可用薏苡仁 若素問言因寒 則筋急者 不可更用此也 凡用之須倍於他藥 此物力勢和緩 須倍加用即見效 蓋受寒即能使人筋急 受熱故使人筋攣 若但熱而不會受寒 亦能使人筋緩 受濕(교정)則又引長無力 李時珍, 『本草綱目』, 「薏苡仁」, 宗奭曰 薏苡仁本經云微寒 主筋急拘攣 拘攣有兩等 素問註中 大筋受熱 則縮而短 故攣急不伸 此是因熱而拘攣也 故可用薏苡 若素問言因寒 則筋急者 不可更用此也 蓋受寒使人筋急 寒熱使人筋攣 若但受熱不會受寒 亦使人筋緩 受濕則又引長無力也 此藥力勢和緩 凡用須加倍即見效

울무는 열로 인한 근육경련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열이나 습으로 인하여 근육이 나른하고 무력한 증상에도 울무를 사용한다고 하여 근육경련뿐만 아니라 몸이 찌뿌듯하여 몸이 무겁고 나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진형(朱震亨, 1281~1358)은 몸이 찌뿌듯하고 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한(寒)하면 근육이 긴장되어 단단하게 되고 열(熱)하면 근육이 오므라들어 단축하게 된다. 여기에 습(濕)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어 늘어지게 된다. 대개 한(寒)과 습(濕)은 열(熱)을 동반하게 되는데 모두 습(濕)에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습(濕)이 병이 되는데 술 고기 매운 음식 등이 습의 원인이 된다.’<sup>29)</sup>고 하여 고량진미를 많이 먹음으로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에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울무는 오행상 토(土)에 속하고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에 해당되는 양명(陽明)의 약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건비익위(健脾益胃)한다. 보통 허하면 그 모(母)를 보하면 되기 때문에 폐위(肺痿) 폐옹(肺癰)에 울무를 사용한다. 근골(筋骨)의 병에는 양명(陽明)을 근본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근육경련 경직 풍비(風痺)에 울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토(土)는 수(水)를 이기고 습(濕)을 제거하기 때문에 설사 수종(水腫)에 울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방(古方)의 소속명탕(小續命湯)의 주에 중풍으로 인한 근육경련과 말이 어둔하고 맥현(脉弦)한 자에게 울무를 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장을 도와 간장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30)</sup>라고 정리하고 있다.

고량진미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 오히려 기운이 단쳐[闔] 濕이 생긴 경우에 울무를 사용하였다는 기존의학의 임상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울무는 멎쳐진 기운을 풀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升降開闔의 개념으로 본다면, 울무는 멎쳐진 기운을 여는[開] 성질이라 할 수 있어 태음인약(肺藥)으로 볼 수 있다.

(3) 체내의 습기를 다스리는 開胃작용

울무를 빻아 가루로 내지 않고 끓이면 죽을 쑤기 어렵다. 따라서 죽을 끓일 때에는 빻아서 쑤어야 한다. 울무의 겉은 딱딱하지만 한번 깨뜨려지면 잘 퍼지고 물을 빨아들여 끈끈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울무가 습기를 다스림을 알 수 있는데,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은 『芝峰類說』에서 ‘바다 위에 있는 배의 선창(船窓, 창호지)에 울무죽을 쑤어 바르면 아무리 습기가 많은 바람이나 거친 풍랑을 만나도 오래 견디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울무가 덥고 습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을 이겨내고 습기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고 설명하고 있다.

습기를 다스리는 울무에 대하여 『동의보감』에서는 ‘폐위(肺痿, 폐가 말라 몸이 수척해지는 병), 풍습비(風濕痺, 風濕으로 인한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 건습각기(乾濕脚氣)를 다스린다.’<sup>32)</sup>고 하여 오랜 풍습(風濕)으로 인한 근육통, 관절통, 부종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흔히 물살이 쪼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습(濕)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비만치료제로 울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체내에 습기(水濕)가 안개처럼 정체되어 있으면 배가 더부룩하여 소화가 되지 않는다. 수증기가

29) 李時珍, 『本草綱目』, 「薏苡仁」, 震亨曰 寒則筋急 熱則筋縮 急因於堅強 縮因於短促 若受濕則弛 弛則引長 然寒與濕未嘗不挾熱 三者皆因於濕 然外濕非內濕啓之不能成病 故濕之爲病 因酒而魚肉繼之 甘滑 陳久 燒炙并辛香 皆致濕之因也

30) 李時珍, 『本草綱目』, 「薏苡仁」, 時珍曰 薏苡仁屬土 陽明藥也 故能健脾益胃 虛則補其母 故肺痿 肺癰用之 筋骨之病 以治陽明爲本 故拘攣筋急風痺者用之 土能勝水除濕 故泄瀉水腫用之 按古方小續命湯註云 中風筋急拘攣 語遲脉弦者 加薏苡仁 亦扶脾抑肝之義

31) 李睟光, 『芝峰類說』, 「藥」, 海上船窓 以薏苡末糊紙 則雖遇風濤 能耐久 今戰船皆用此法 其勝瘴去濕可知 但考醫方薏苡屬草類 久食太下損氣云 蓋非補益之藥也

32) 許澐, 『東醫寶鑑』, 「薏苡仁」, 울미발 性微寒(一云平)味甘無毒 主肺痿肺氣吐膿血咳嗽 又主風濕痺 筋脉攣急 乾濕脚氣 <本草>

빠지지 않는 술에서 밥이 잘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데, 이 때 수증기를 빼어주어 습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무이다. 따라서 동무는 울무를 ‘開胃 消食進食’하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 것이다.

보통 寒邪가 뭉쳐져 脾胃濕熱이 된 상태에 肺氣의 호산지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태음인의 表病이 된다. 즉 表氣가 虛薄하여 寒邪가 胃脘을 감싸고 장기화되어 위, 대장에까지 영향을 주어 나타나는 병증에 울무를 사용하는데, 울무는 脾를 강화하여 脾肺腎의 기를 왕성하게 하여 습이 체내에 머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消食進食시키는 調胃劑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한다.<sup>33)</sup> 따라서 태음인 표병 가운데 마황발표탕 마황정천탕을 제외하고 대부분 처방에 울무가 사용되었고 리병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 4. 은행

(1) 은행은 뚫고 나가는 힘[通力]이 좋다.

은행나무에 대한 명칭은 은행잎의 모양이 오리(鴨)의 발(脚)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압각(鴨脚)이라 호칭하였는데, 송(宋)나라 초기 처음으로 황실에 진상되면서 은행나무의 열매가 작은 살구(小杏)와 비슷하고 중종피가 은(銀)과 같이 흰색이기 때문에 은행(銀杏)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현재 한의학에서는 흰색(白)의 과일(果)이라는 뜻으로 백과(白果)라 한다.<sup>34)</sup>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은행은 처방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가 송(宋)나라 이후에서야 비로소 처방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sup>35)</sup> 살아있는 화석식물이라는 말에 걸맞게 은행나무는 육상식

물임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수생식물과 같이 정자(精子)에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 정충과 같이 먼 거리를 헤엄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우 짧은 거리를 헤엄치는 것으로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특이하게도 다른 일반적인 과일과는 달리 은행의 과육을 먹는 동물은 없으니, 이점은 마치 다른 동물의 힘을 빌어 종자를 번식시키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다른 매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나가는 은행나무 꽃가루의 성질은 동무가 분류한 태음약의 기준에 의하면 뚫고 나가는 힘[通力]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은행은 肺를 위한 과일

『동무유고』에서는 은행을 ‘맛이 달고 쓰니 태음인의 기침(喘嗽)과 백탁(白濁, 소변이 혼탁하여 뿌연 증상)을 치료하고 차(茶)에 넣으면 주독(酒毒)을 누르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된다.’<sup>36)</sup>라고 정리하고 있다.

짙은 은행으로 옷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면 잘 제거되는 것을 보고 은행이 진득한 가래를 잘 없앨 수 있다고 보아 가래기침에 은행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은행은 폐경(肺經)으로 기운이 들어가 폐의 기운을 돌고, 기침을 없애며, 오줌소태, 대하(帶下)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37)</sup> 더 나아가 『醫學入門』에서는 은행을 폐(肺)와 위(胃)의 탁기(濁氣)를 맑게 하여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보았는데,<sup>38)</sup> 결론적으로 은행은 폐(肺)의 과일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동무는 『醫學入門』에서 은행이 胃의 濁氣를

33) 조항성, 『四象醫學의 原理와 方劑』, 集文堂, 2003, 453-455쪽.

34) 李時珍, 『本草綱目』, 「銀杏」, 時珍曰 原生江南 葉似鴨掌 因名鴨脚 宋初始入貢 改呼銀杏 因其形似小杏 而核色白也 今名白果

35) 李時珍, 『本草綱目』, 「銀杏」, 時珍曰 銀杏宋初始著名 而修本草者不收 近時方藥亦時用之

36) 李濟馬, 『東武遺稿』, 「白果」, 白果甘苦 喘嗽白濁 點茶壓酒 不可多食(銀杏) 白果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

37) 李時珍, 『本草綱目』, 「銀杏」, 其氣薄味厚 性澀而收 色白屬金 故能入肺經 益肺氣 定喘嗽 縮小便 生澀能流油膩 則其去痰濁之功 可類推矣.

38) 李梴, 『醫學入門』, 「銀杏」, 俗名白果 味甘寒有毒 清肺胃濁氣 化痰定喘止咳 多食 昏神殺人.

39) 徐命應, 『本草』, 「銀杏」, 銀杏 肺之果也.

맑게 한다는 것에서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은행이 태음인의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 효과가 있다고 처음에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말년에 쓰인 『동의수세보원』에서는 哮喘病에 사용되는 麻黃定喘湯에만 은행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태음인의 소화를 은행이 도와준다고 생각하였으나, 임상경험이 축적된 후기에는 은행에 대한 시각을 소화를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肺氣를 도와 해소천식을 치료하는 효능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3) 은행이 들어간 麻黃定喘湯의 유래

『동의수세보원』에서 은행이 사용된 곳은 태음인 표증의 麻黃定喘湯이 유일하다. 동무는 『東醫壽世保元甲午本』(1894)에서 龔信的 『萬病回春』(1587)의 麻黃定喘湯을 소개하면서<sup>41)</sup> 태음인약이 아닌 半夏 蘇子 甘草를 빼고 麥門冬 升麻 葛根 桔梗 五味子를 넣고 분량을 다시 조정하여 새로운 마황정천탕을 입방하였지만 태음인약인 桑白皮를 생략하였다.<sup>42)</sup> 임상경험이 축적된 동무는 개정된 『東醫壽世保元-初版』

<표 1> 역대의서별 定喘湯 白果定喘湯 千金定喘湯 麻黃定喘湯 처방구성의 변화(단위 錢)

醫書(저술년도)	처방명	麻黃	杏仁	黃芩	半夏	桑白皮	蘇子	款冬花	甘草	白果	龍腦子	桔梗	麥門冬	升麻	葛根	五味子	橘紅	비고		
赤水元珠(1584)	定喘湯	3	1.5	1.5	3	3	2	3		21개										
赤水元珠(1584)	定喘湯	3	1.5	1.5	3	3	2	3	1	21개										
萬病回春(1587)	麻黃定喘湯	3	1.5	1	1	1	1	1	1	21개										
本草綱目(1590)	白果定喘湯	3	1.5	1.5	2	2	2	2	1	21개										
證治準繩(1602)	定喘湯	3	1.5	1.5	3	3	2	3	1	21개									赤水元珠	
景岳全書(1624)	定喘湯	3	1.5	1.5	3	3	2	3		21개									赤水元珠	
醫宗金鑑(1742)	千金定喘湯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有	약재 표시만	
續名醫類案(1770)	白果定喘湯	3	1.5	1.5	2	2	2	2	1	21개										本草綱目
蘭溪軌範(1764)	定喘湯	3	1.5	1	3	3	2	3	1	21개										
감오본(1894)	麻黃定喘湯	3	1	1				2		10개		1	2	1	1	1				상백피 빠짐
초판본(1901)	麻黃定喘湯	3	1.5	1		1		1		21개	1	1	1							나복자 첨가

本』(1901)에서 자신이 새로 넣었던 升麻 葛根 五味子를 빼고, 자신이 뺐던 桑白皮를 다시 넣고 萊菔子를 새롭게 넣은 다음 분량을 조정하여 개정된 마황정천탕을 입방하였다.<sup>40)</sup>

동무가 사용한 麻黃定喘湯의 근본은 『萬病回春』(1587)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의서와는 처방구성의 약재종류는 비슷하지만 분량에

있어서는 <표 1>에서와 의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赤水元珠』(1584)에서는 천식이 오래되어 낮지 않을 定喘湯을 사용하는데 같은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감초가 있는 경우<sup>43)</sup>와 없는 경우<sup>44)</sup>가 각각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감초가 있는 처방은 『證治準繩』(1602)<sup>45)</sup>에서 인용되고, 감초가 없는 처방은 『景岳

4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麻黃定喘湯 麻黃 三錢 杏仁 一錢五分 黃芩 萊菔子 桑白皮 桔梗 麥門冬 款冬花 各一錢 白果 炒黃色 二十一箇

4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甲午本』, 麻黃定喘湯 麻黃 三錢 杏仁 一錢五分 黃芩 半夏 桑白皮 蘇子 款冬花 甘草 各一錢 白果 二十一箇 去殼碎炒黃色 歌曰 諸病原來有藥方 惟愁胸喘最難當 病人遇此仙丹藥 服後方知定喘湯 此方 出於龔信萬病回春書中 治哮喘神方 ○今考更定 此方 當去半夏 蘇子 甘草

4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甲午本』, 麻黃定喘湯 麻黃 三錢 款冬花 麥門冬 各二錢 杏仁 升麻 葛根 桔梗 黃芩 五味子 各一錢 白果 十枚

43) 孫一奎, 『赤水元珠』, 定喘湯 白菓二十一枚 去殼切碎炒黃色 麻黃 款冬花 桑皮蜜炙 法製半夏 如無以甘草湯泡七次去皮用各三錢 甘草一錢 蘇子二錢 杏仁一錢半 黃芩炒一錢半 右用水三鍾煎二鍾 分二服 不用薑 不拘時徐徐服

44) 孫一奎, 『赤水元珠』, 定喘湯 治諸喘久不愈 白菓二十一枚去殼切炒 款冬花 桑白皮蜜炒 麻黃 法製半夏各三錢 蘇子二錢 杏仁 酒芍各一錢半 右水煎作二次服

全書』(1624)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sup>46)</sup>

『赤水元珠』(1584)<sup>47)</sup>과 『本草綱目』(1590)에서는 어떤 사람이 심한 가래기침에 은행이 들어가는 백과정천탕(白果定喘湯)을 사용하여 효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집안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sup>48)</sup> 이 내용이 『續名醫類案』(1770)에서 그대로 인용되면서 風寒外感者만 사용해야지 上盛下虛한 사람이 복용하면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sup>49)</sup>

『醫宗金鑑』(1742)에서는 처방약재는 동일하나 분량이 표시되지 않은 채 哮喘表寒之喘에 千金定喘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sup>50)</sup> 『蘭臺軌範』(1764)에서는 肺寒膈熱哮喘에 定喘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황금이 一錢으로 분량이 조정된 것 이외에는 기존의 처방과 동일하다.<sup>51)</sup>

이상으로 미루어 동무의 마황정천탕은 기존의 의서의 定喘湯 白果定喘湯 千金定喘湯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赤水元珠』

(1584)<sup>52)</sup>과 『證治準繩』(1602)<sup>53)</sup>에서 언급한 麻黃定喘湯은 麻黃 草薺 益智仁 甘草 當歸身 紅花 黃芩 柴胡 升麻 神麩 吳茱萸 蘇木 全蝎 (厚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 1>에서 정리된 처방과는 서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사상의학에서의 麻黃定喘湯과 기존의학에서의 麻黃定喘湯과는 처방내용이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서의 定喘湯 白果定喘湯 千金定喘湯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서의 定喘湯이라 하여 <표 1>에서 보이듯이 같은 처방만은 아니다. <표 2>를 살펴보면 『婦人大全良方』(1237)<sup>54)</sup>과 『普濟方』(1500년대)<sup>55)</sup>의 경우 半夏 阿膠 甘草 罌粟殼 五味子 桑白皮 麻黃 人參 등으로 定喘湯이 구성되어 있어, 『太平惠民和劑局方』(1078)<sup>56)</sup>, 『世醫得效方』(1345)<sup>57)</sup>, 『玉機微義』(1396)<sup>58)</sup>, 『普濟方』(1500년대)<sup>59)</sup>, 景岳全書(1624)<sup>60)</sup>의 人參定喘湯과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비슷한 처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학

- 45) 王肯堂, 『證治準繩』, 定喘湯 白果二十一枚 去殼切碎炒黃色 麻黃 款冬花 桑皮蜜炒 法製半夏 如無以甘草湯泡七次去皮用各三錢 蘇子二錢 杏仁 黃芩炒各一錢半 甘草一錢 水三鍾煎二鍾 分二服 不用薑 徐徐服無時
- 46) 張介賓, 『景岳全書』, 定喘湯 治諸喘久不愈 ○按此方必風痰在肺者 乃可用 他則忌之 白果三七枚 去殼切碎炒 款冬花 桑白皮蜜炒 麻黃 製半夏各三錢 蘇子二錢 黃芩微炒 杏仁各錢半 水三鍾煎二鍾作 二次服 不拘時徐徐飲 嗽曰 諸病原來有藥方 惟愁胸喘最難當 麻黃桑杏尋穉子 白果冬花用更良 甘草黃芩同半夏 水煎百沸不須薑 病人遇此仙丹藥 服後方知定喘湯 金陵有一浦舍用此方 專治胸疾無不取效 此其真方也
- 47) 孫一奎, 『赤水元珠』, 定喘湯 詩曰 諸病原來有藥方 惟愁胸喘最難當 麻黃桑杏尋穉子 白果冬花更又良 甘草黃芩同半夏 水煎百沸不須薑 病人遇此仙丹藥 服後方知定喘湯 金陵有一浦舍用此方 專治胸疾無不取效 此其真方也
- 48) 李時珍, 『本草綱目』, 『銀杏』, 哮喘痰嗽 鴨掌散 用銀杏五箇 麻黃二錢半 甘草炙二錢 水一鍾半 煎八分 臥時服 又金陵一鋪治哮喘 白果定喘湯 服之無不效者 其人以此起家 其方用白果二十一箇炒黃 麻黃三錢 蘇子二錢 款冬花 法制半夏 桑白皮蜜炙各二錢 杏仁去皮尖 黃芩微炒 各一錢半 甘草一錢 水三鍾 煎二鍾 隨時分作二服 不用薑
- 49) 魏之琇, 『續名醫類案』, 金陵一鋪治哮喘 白果定喘湯服之 無不效者 其人以此起家 方用白果二十一箇炒黃 麻黃三錢 蘇子二錢 款冬花 法製半夏 桑白皮蜜炙各二錢 杏仁去皮尖 黃芩微炒各一錢半 甘草一錢 水三鍾 煎二鍾 隨時分作二服 不用薑攝生方 本草綱目 琇按此方 惟風寒外感者 宜用 若上盛下虛 氣不歸元者 服之立斃 如不問虛實盡行與之 雖起家而殺人多矣 然今之時師 執方遇病謬爲知脈 其人亦未必不起家 而其罪則加等矣
- 50) 吳謙, 『醫宗金鑑』, 外寒傷肺喘急 用華蓋散 卽麻黃 杏仁 蘇子 甘草 橘紅 赤茯苓 桑皮也 依本方 減茯苓 加黃芩 款冬花 半夏 白菓 名千金定喘湯 治哮喘表寒之喘 葶藶大棗湯 治停飲不得臥之喘也
- 51) 徐大椿, 『蘭臺軌範』, 定喘湯振生方 治肺寒膈熱哮喘 麻黃 款冬花 半夏 桑皮各三錢 蘇子二錢 杏仁一錢五分 白果二十一枚碎炒 黃芩 甘草各一錢 右以水煎徐徐服
- 52) 孫一奎, 『赤水元珠』, 東垣麻黃定喘湯 小兒寒鬱喘 喉中鳴 腹內響 堅滿 鼻流清涕 脉沈急而數 麻黃 草薺 益智仁各兩分半 甘草 歸身 紅花 黃芩生 柴胡各一分 升麻 神麩各五分 吳茱萸三分 蘇木半分 全蝎 右分二服水煎微汗愈
- 53) 王肯堂, 『證治準繩』, 麻黃定喘湯東垣 治小兒寒鬱而喘 喉鳴腹內鳴 堅滿 鼻流清涕 脉沈急而數 麻黃 草薺各一錢 益智仁一分半 厚朴 吳茱萸各二分 甘草 柴胡稍 黃芩生各一分 當歸尾 蘇木 升麻 神麩各半 紅花少許 全蝎一枚 右分二服水一大盞煎七分 稍熱服食 遠忌風寒微汗
- 54) 陳自明, 『婦人大全良方』, 定喘湯 治丈夫婦人遠年日近 肺氣咳嗽 上氣喘急 喉中涎聲 胸滿氣逆 坐臥不安 飲食不下 及治肺感寒邪 咳嗽聲重 語音不出 鼻塞頭昏 並皆治之 半夏麩炒 明阿膠炒 甘草各錢半 罌粟殼半兩製 北五味子 桑白皮 麻黃去節 人參各一分 右吹咀每服三大錢 薑三片 烏梅半箇 煎至七分 去滓漸漸溫服 食後臨臥服 方同和劑分兩 加減不同有效
- 55) 朱熹, 『普濟方』, 定喘湯 出永類鈴方 治狀同前 半夏麩炒 明阿膠炒 甘草各錢半 罌粟殼半兩製 北五味子 桑白皮 鹿黃去節 人參各一分 右吹咀每服三大錢 薑三片 烏梅半箇 煎至七分 去滓漸漸溫服 食後臨臥服
- 56)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人參定喘湯 治男子婦人 遠年日近 肺氣咳嗽 上喘氣急 喉中涎聲 胸滿氣逆 坐臥不安 飲食

에서 定喘湯이라 하면 은행이 들어간 <표 1> 과 같은 경우도 있고, <표 2>와 같이 은행이 들어가지 않고 처방구성이 전혀 다른 人參定喘湯을 의미하기도 한다.

## 5. 밤

(1) 밤꽃향기는 멀리 퍼지는馨에 속한다. 강렬한 밤꽃의 냄새는 흡사 남성의 상징인 정액냄새와 비슷하고 또한 멀리 퍼져나간다. 밤

<표 2> 人參定喘湯의 처방구성

의서(저술연대)	처방명	人參	麻黃	甘草	阿膠	半夏	五味子	罌粟殼	桑白皮
太平惠民和劑局方(1078)	人參定喘湯	一兩	一兩	一兩	一兩	一兩	一兩半	二兩	一兩半
婦人大全良方(1237)	定喘湯	一分	一分	錢半	錢半	錢半	一分	半兩	一分
世醫得效方(1345)	人參定喘湯	一兩	一兩	一兩	一兩	一兩	一兩半	二兩	半兩
玉機微義(1396)	人參定喘湯	一兩半	一兩半	一兩半	一兩半	一兩半	一兩半	二兩	一兩半
普濟方(1500년대)	定喘湯	一分	一分	錢半	錢半	錢半	一分	半兩	一分
普濟方(1500년대)	人參定喘湯	一兩	一兩	一兩	一兩	一兩	一兩半	二兩	一兩半
景岳全書(1624)	人參定喘湯	八分	八分	八分	八分	八分	八分	八分	錢半

송이의 날카로운 가시는 강함의 상징이며, 알 밤이 익으면 자신을 감싸고 있던 밤송이를 터트리고 스스로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이 밤의 뻗어나가려는 기운을 감싸기 위해 밤껍질은 매우 단단하다. 이는 누르는 힘이 강할수록 반발력(木氣)은 더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밤을 구울 때 꼭 칼로 흠집을 내는 이유도 밤의 강력한 발산력(發散力)이 밤이 익음에 따라 억누르던 밤껍질을 갑자기 파열시켜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밤의 성질은馨臭液味の 기준으로 본다면 멀리 퍼져나가는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밤의 뻗치는 기운을 호산지기(呼散之氣) 또는 목기(木氣)가 강하다고 보아 태음인에게 사용하면 좋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동무유고』에 ‘몽친 것이 많아져 소화

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태음인이 밤을 복용하면 비위를 튼튼하게 하여 음식소화가 잘 되게 한다.’<sup>61)</sup>고 보았다.

(2) 밤은 胃氣를 도와 腎虛腰脚無力을 치료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은 ‘한기(寒氣)로 인한 설사에는 반드시 불에 구운 밤 20~30개를 먹는다. 신장(腎臟)은 대변을 주관하고 밤은 신장에 통하기 때문에 腎虛腰脚無力에 밤이 효험이 있는 것이다. 생밤을 자루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서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아침마다 10여 개의 밤을 먹은 다음, 돼지의 신장(腎臟)을 끓인 죽(猪腎粥)을 오래 먹으면 반드시 건강해진다. 복용방법에 있어서 바람에 말린 밤은 햇볕에 말린 것보다 낮고 불에 굽거나 기름에 볶은 것은 삶거나 찐 것

不下 及治肺感寒邪 咳嗽聲重 語音不出 鼻塞頭昏 並皆治之 人參切片 麻黃去節 甘草炙 阿膠炒 半夏麩各一兩 五味子一兩半 罌粟殼蜜炙二兩 桑皮一兩半 右爲粗末 入人參片拌勻每服三大錢 水一盞半 入生薑三片 同煎至七分 去渣食後溫服 又治小兒久病肺氣喘急 喉中涎聲 胸膈不利 嘔吐痰沫 更量歲數加減服

57) 危亦林, 『世醫得效方』, 通治人參定喘湯 治肺氣喘 喉中有聲 坐臥不安 胸膈緊滿 及治肺感寒邪 咳嗽聲重 人參去蘆一兩 罌粟殼蜜炙二兩 麻黃去節 半夏麩 甘草炙各一兩 桑白皮半兩 阿膠炒一兩 五味子一兩半 右剉散每服三錢 水一盞薑三片煎至七分 食後溫服

58) 徐用誠, 『玉機微義』, 人參定喘湯 治欬而上喘 人參 麻黃 半夏 阿膠 甘草 桑白皮 五味子各一兩半 粟殼二兩 右吹咀入莖煎每半兩或一兩 按此以辛散之 甘緩之 酸收之 本於寒邪者可用

59) 朱橚, 『普濟方』, 人參定喘湯 治丈夫婦人遠年近日 肺氣咳嗽氣急 喉中涎聲 胸滿昏沉氣逆 坐臥不安 飲食不下 及治肺感寒邪 咳嗽聲重 語音不出 鼻塞頭昏 並皆治之 人參切片 麻黃去節 甘草炙 阿膠炒 半夏麩各一兩 桑白皮 五味子各一兩半 罌粟殼蜜炙二兩 右爲粗末 入人參片拌勻每服三錢水一盞半 入生薑三片 煎至七分 去滓食後溫服 又治小兒久病肺氣喘急 喉中涎聲 胸膈不利 嘔吐痰沫 更量歲數加減服之一方無桑白皮

60) 張介賓, 『景岳全書』, 人參定喘湯 治肺氣上喘 喉中有聲 坐臥不安 胸膈緊痛 及治肺感寒邪 欬嗽聲重 人參 麻黃 阿膠 半夏麩 五味子 粟殼 甘草各八分 桑白皮錢半 水二鍾薑三片煎八分食後服

61) 李濟馬, 『東武遺稿』, 栗子酸溫 益氣厚腸 補腎耐飢 略煨尤良 乾栗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

보다 좋다. 그러나 반드시 밤을 잘 씹어 타액과 함께 삼키면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오히려 비장이 상할 수도 있다.<sup>62)</sup>고 하여 한기로 인한 설사에 밤을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本草求真』(1769)에 의하면 ‘밤은 신장(腎臟)에 좋은 과일이라 할 수 있다. 밤의 맛이 짜고 성질이 따뜻하며 무겁고 실(實)하기 때문에 신기(腎氣)를 보(補)해주고 위기(胃氣)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胃氣가 허약하여 허리와 다리가 약해진 경우와 배가 꾸룩거리며 나는 설사에 밤을 사용하여 효험이 없는 경우가 없다.’<sup>63)</sup>고 하여 밤이 胃氣를 도와 신장이 허하여 생긴 腰脚軟弱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밤은 태음인 표병증에 사용되었고 리병증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밤은 울무, 나복자와 동시에 사용되어 消食進食하는 효능을 내는 것이다. 밤은 益氣厚腸하여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것 이외에 補腎작용이 있어 요각통을 치료한다고 보았다.

### (3) 밤은 신장의 과일

밤은 신장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허리와 다리가(腰脚) 약해져서 고생하던 사람이 밤나무 숲에 들어가 날밤을 여러 되(數升)를 먹었더니 보행하기가 쉬워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腎臟)이 약해지면 허리와 다리가 같이 약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밤의 보신(補腎)하는 작용을 빌어 다리를 치료한 의미이기 때문에 날로 먹은 것이다. 만약 식

이로 밤을 먹을 때에는 썰서 햇빛에 말려 먹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sup>64)</sup>

밤은 신기(腎氣)를 보(補)하기도 하지만, 장위(腸胃)를 든든하게 하여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왕정(王禎)의 『農書』(1313)에서도 진(秦)나라가 기아에 허덕일 때 대추와 밤을 먹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65)</sup> 또한 날밤을 먹으면 다리가 불편한 것(腰脚不遂)을 치료하고, 근골(筋骨)이 상했을 때, 종통어혈(腫痛瘀血)을 치료할 때에도 날밤을 씹어 붙여도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였다.<sup>66)</sup>

동무는 기존의서에서 밤이 신장에 좋다고 하였으나 그 근본은 밤이 胃氣를 도와 腎氣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였다.

## Ⅲ. 결 론

연 울무 은행 밤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멀리 퍼지는 연의 향기는 馨으로 볼 수 있고, 연근의 공기구멍은 氣液之氣가 활발하여 생긴 것으로 해석되며,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연의 특성은 通力이 좋아 開의 개념으로 보아 肺藥으로 분류된다. 또한 뭉친 것을 풀어주는 解熱開胃의 효능이 있어 연을 태음인 리증에 사용하는 開胃消食進食하는 식품으로 보았다.

(2) C<sub>4</sub>식물인 울무는 呼散之氣를 도와주고, 단치는 기운(閻氣)이 많아 생긴 질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울무는 肺藥으로 분류된다. 체내의

62) 李時珍, 『本草綱目』, 「栗」, 時珍曰 栗於五果屬水 水涼之年則栗不熟 類相應也 有人內寒 暴洩如注 令食煨栗二三十枚 頓愈 腎主大便 栗能通腎 於此可驗 經驗方治腎虛腰脚無力 以袋盛生栗懸乾 每旦喫十餘顆 次喫豬腎粥助之 久必強健 蓋風乾之栗 勝於日曝 而火煨油炒 勝於煮蒸 仍須細嚼 連液吞嚥 則有益 若頓食至飽 反致傷脾矣

63) 黃宮繡, 『本草求真』, 「栗」, 栗腎之菓也 味鹹性溫 體重而實 故能入腎而補氣 凡人胃氣虧損 而見腰脚軟弱 並胃氣不充 而見腸鳴泄瀉 服此治無不效

64) 李時珍, 『本草綱目』, 「栗」, 思邈曰 栗腎之菓也 腎病宜食之 弘景曰 相傳有人患腰脚弱 往栗樹下食數升 便能起行 此是補腎之義 然應生噉 若服餌則宜蒸曝之

65) 王禎, 『農書』, 「栗」, 按史記秦饑 應侯請發五苑之棗栗 由是觀之 本草所謂栗厚腸胃 補腎氣 令人耐飢 殆非虛語 李時珍, 『本草綱目』, 「栗」, 王禎農書云 史記載秦飢 應侯請發五苑棗栗 則本草栗厚腸胃 補腎氣 令人耐飢之說 殆非虛語矣

66) 李時珍, 『本草綱目』, 「栗」, 主治益氣 厚腸胃 補腎氣 令人耐飢(別錄) 生食 治腰脚不遂(思邈) 療筋骨斷碎 腫痛瘀血 生嚼塗之 有效(蘇恭)

습기를 다스려 開胃消食進食작용을 하는 울무는 태음인 표증에 사용된다.

(3) 동물의 정충과 같이 스스로 헤엄치는 은행나무의 꽃가루는 뚫고 나가는 힘[通力]이 좋은 것으로 해석되어 肺藥으로 분류된다. 胃의濁氣를 맑게 하여 肺의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보았으나, 임상경험이 축적된 말년에는 開胃의 개념보다는 肺氣를 도와준다는 개념으로만 사용하였다. 『동의수세보원』의 麻黃定喘湯은 기존의서 의 定喘湯 白果定喘湯 千金定喘湯에서 유래된 것이고, 『赤水元珠』 『證治準繩』의 麻黃定喘湯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婦人大全良方』과 『普濟方』의 定喘湯은 人參定喘湯을 의미하고 있다.

(4) 강렬하고 멀리 퍼져나가는 밤꽃냄새는 馨에 속하고, 알밤이 밤송이를 터트리고 스스로 튀어나오는 것은 發散之力이 강한 木氣로 보아 밤을 肺藥으로 분류된다. 밤은 胃氣를 도와 腎虛腰脚無力를 치료한다. 따라서 신장에 좋은 밤은 울무와 같이 태음인 표증에 開胃消食進食하는 약으로 사용된다.

#### IV. 참고 문헌

##### \* 古書類

賈思勰, 『齊民要術』, (530~550)(北魏)  
 唐慎微, 『證類本草』 (1108)(宋)  
 唐宗海, 『本草問答』(1893)  
 徐大椿, 『蘭臺軌範』(1764)  
 徐命應, 『本史』(1787)  
 徐用誠, 『玉機微義』(1396)  
 孫一奎, 『赤水元珠』(1584)  
 吳謙, 『醫宗金鑑』(1742)  
 王肯堂, 『證治準繩』(1602)  
 王禎, 『農書』(1313)  
 王好古, 『湯液本草』(1289)  
 危亦林, 『世醫得效方』(1345)

魏之琇, 『續名醫類案』(1770)  
 李晔光, 『芝峰類說』(1614)  
 李時珍, 『本草綱目』(1590)  
 李濟馬, 『東武遺稿』  
 李濟馬, 『東醫壽世保元-甲午本』(189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初版本』(1901)  
 李濟馬, 『四象草本卷』  
 李梴, 『醫學入門』(1575)  
 張介賓, 『景岳全書』(1624)  
 저자미상, 『普濟演說』(1900)  
 周惇頤, 『古文眞寶』  
 朱橚, 『普濟方』(15세기 초)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1078)  
 陳自明, 『婦人大全良方』(1237)  
 許浚, 『東醫寶鑑』(1610)  
 黃宮繡, 『本草求真』(1769)

##### \* 新書類

김종덕, 「麥類의 春化處理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 農家月令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 10(1), 1998.  
 김종덕, 「옥수수(玉蜀黍)의 도입과정과 기장(黍), 수수(蜀黍)와의 상관관계」, 『사상의학회지』, 10(2), 1998.  
 김종열,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박성식,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3(2), 2001.  
 송일병, 『사상의학의 약리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1967.  
 이시우, 『東醫壽世保元 處方に 活用된 藥材에 대한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조황성,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7(2), 1995.  
 조황성, 『四象醫學의 原理와 方劑』, 集文堂, 2003